



전남 신안군 선도리 범덕산에서 바라본 갯벌.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순천·보성·신안·고창·충남서천...현지실사 호평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한 ‘한국의 갯벌’이 지난 7일까지 8일간의 현지실사에서 호평을 받았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지실사는 서류심사, 토론자 심사 등 여러 전문가의 참여로 진행되는 세계유산 전체 심사과정의 한 단계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산하 자문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수행한 이번 실사는 바스티안 베르츠키(Bastian Bertzky, 독일)씨와 소날리 고쉬(Sonali Ghosh, 인도)가 담당했다.

유네스코는 이번 실사 결과와 등재신청

서 심사를 바탕으로 등재 권고와 보류, 반려, 등재 불가의 4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세계유산 지정은 훼손 위기의 유형유산 보호에 목적이 있다. 국내적 중요성보다는 세계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중요하게 여긴다.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은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대표적 갯벌인 전남 순천·보성, 신안, 전북 고창, 충남 서천의 4곳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모래 갯벌 육지부의 사구 발달, 방풍림 분

포, 배후의 염전과 논, 자연경관이 뛰어난 자연 송림 등이 있다.

연간 300여 종, 약 100만 마리가 넘는 철새 이동로로, 다양한 생물종과 대형저서동물(고둥, 게, 조개류 등) 150여 종이 서식하는 생태 보고다. 와덴해(독일, 네덜란드), 미국, 중국 갯벌과 다른 생태환경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전체 신청 유산 구역은 12만9346ha다.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이 전체의 약 87%를 차지한다.

‘한국의 갯벌’은 2010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이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중앙정부(문화재청,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3개 광역, 5개 기초)가 업무협약

(MOU)을 체결한 이래 보편적 가치 도출, 비교연구, 보존관리계획 수립했다.

이번 실사자들은 총평에서 세계자연유산등재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지와, 중앙·지방정부의 긴밀한 관계 유지와 NGO 활동을 높게 평가했다. 현지실사 일정 및 동선, 자료 제공, 갯벌 갯벌 설명 등에 충분히 만족하고, 보고 듣고 느낀 바를 IUCN에 보고서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는 2020년 6~7월께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전라남도는 문화재청, 시·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등과 힘을 모아 최종 등재 때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유현석 기자 chadol@

日, 북일관계 고려 “어선충돌 영상 공개안해”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발생한 일본 단속선과 북한 어선의 충돌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니시무라 아키히로(西村明彦) 관방부(副)장관은 9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충돌 당시 영상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조사에 대한 영향도 있을 수 있으니 공표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6장의 사진만 공개하면서 동영상은 공표하지 않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전날 자민당 일부 의원들은 충돌 당시의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충돌 사고가 북미협상에 영향을 미칠지는 질문에 대해서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다”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고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발생했다고 밝히면서도 북한이 위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단언을 하지 않은 채 신중해 하고 있다. 대신 충돌 후 바다에 빠진 북한 승조원들을 구조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바로

북한 측에 인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 “침묵한 북한 어선의 불법 조업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 래서 승조원에 대한 구속 등 신병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사고와 관련해 “베이징 대사관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만 말한 채 ‘무엇’에 대해 항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 어선과 일본 선박의 충돌은 지난 7일 오전 9시 7분께 일본 노토(能登)반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황금어장 대화퇴 어장에서 발생했다. 사고로 북한 어선은 크게 파손돼 침몰했는데, 60여명의 북한 승조원들은 모두 구조됐다. 일본은 구조된 선원을 주변의 다른 북측 선박에 인계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비판을 삼가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고가 북일 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벨화학상 구디너프·휘팅엄·요시노 공동 수상



올해 노벨화학상은 존 구디너프(미국)와 M. 스탠리 휘팅엄(영국), 요시노 아키라(일본) <왼쪽부터>등 3명의 화학자들이 공동 수상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

원회는 9일(현지시간) 리름 이온 배터리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이들 연구자 3명을 2019년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리산 정상 탐방로서 올가을 첫 얼음 관측

예년보다 6일 정도 빨라

국립공원공단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한글날인 9일 지리산 정상인 천왕봉(1915m) 일대에 올가을 들어 처음 얼음이 얼었다고 밝혔다.

지리산 중봉~천왕봉 사이 해발 1800~

1900m 탐방로 사이에서 고드름과 얼음이 관측됐다. 지리산 일대는 이날 오전 1시께 최저 기온이 2.9도를 기록하는 등 기온이 급강하하고 초속 9.4m의 바람까지 불었다.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올해 첫 얼음은 예년보다 6일 정도 빠른 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국립국악원 유치 협의체 본격 운영”

국악인 등 전문가 20명 구성...범시민운동 전개

광주시가 국립 광주국악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광주시는 지난 4월 ‘국립 광주국악원 유치 협의체’를 출범시킨 뒤 8일 광주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다.

국립 광주국악원 건립은 민선 7기 이 용섭 시장의 공약 사업 중 하나다. ‘국립 광주국악원 유치 협의체’는 안숙선, 김성녀, 유영애, 한상일 선생 등 국악인이 대거 포진했다.

또한, 고려대, 한양대, 경인교육대, 한국교원대, 전남대 등 국악 관련학과 교수와 광주국악협회, 임방울 국악진흥회, 지역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출범 이후 국립광주국악원 건립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범시민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해왔다. 협의체는 앞으로 국립광주국악원 건립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한양대 김영운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립광주국악원 유치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으며 중앙부처, 국립국악원, 국회 방문 등 활동을 통해 올해 국립국악원 소속 국악원 건립 타당성 검토 기준 마련 연구 용역비 2억원을 확보했다.

박항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광주는 명실상부 국악의 텃밭으로 인정받는 도시로, 사람 중심형 국악원의 새 모델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적임자다”며 “국립광주국악원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한국 국가경쟁력 2계단 오른 13위

거시경제 안정성·ICT 보급 1위...노동시장 부문은 하락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13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은 작년에 이어 여전히 전 세계 1위 자리를 지켰지만, 기업 활력과 노동시장 부문 순위가 지난해 대비 하락했다.

9일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141개국 가운데 13위로 집계됐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두 단계, 2017년 대비 네 단계 오른 것이다.

싱가포르가 미국을 제치고 종합 1위에 올랐고 미국은 2위로 주저앉았다. 이외에도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 덴마크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국가보다는 뒤지지만,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6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10번째로 순위가 높았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17개국가운데서는 5위였다. 분야별로 나눠보면 12개 평가 부문 가운데 두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하고 다섯 부문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

지한 부문도 다섯개였다. 우선 노동시장 순위가 올해 전년대보다 3계단 하락한 51위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 중에서도 노사관계에서의 협력 순위는 13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다.

기업 활력 순위는 지난해 22위에서 25위로 내려앉았다. 해당 국가에서 오너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심각도를 설문 조사한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 순위는 작년 77위에서 올해 88위로 떨어졌다.

생산물 시장 경쟁력은 59위로 작년보다 8계단 올랐지만, 여전히 순위는 낮았다. 조세·보조금으로 인한 경쟁 왜곡, 무역장벽 등이 생산물 시장 경쟁력의 순위가 대폭 개선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은 지난해에 이어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인프라(6위), 혁신역량(6위), 보건(8위) 등도 최상위권 성적을 보였다. 시장규모(14위), 금융 시스템(18위), 제도(26위), 기술(27위) 순위도 상위권에 포진했다.

WEF는 한국에 대해 “ICT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면서도 “도전하는 기업가정신 고양과 국내 경쟁 촉진, 노동시장 이중구조·경직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임야

바로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투자 자문

급매물/경매특수물건

법적으로 보장.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로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2019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장학생 모집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는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향우회원 자녀 중에서 애학심이 투철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특기 및 학업 성적 등 미래의 비전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학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1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 ◆ 지원자격
 - 영광군민 및 재광 영광군향우회 회원 자녀 중에서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2018년 10월 1일 현재 영광군이나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부모를 둔 학생
 - ◆ 선발인원
 - 총 20명으로 하되 영광군민 자녀 12명, 재광영광군향우 자녀 8명(예정)
- 2 선발방법 및 구비서류**
 - ◆ 선발방법
 - 영광군민인 자녀 중 영광군수가 추천한 학생 (영광군 추천 양식에 의함)
 - 재광영광군향우 자녀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 학생
 - ◆ 구비서류
 - ①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 추천서 1부
 - ② 공적 조서(해당 분야 자료 사본 첨부)
 -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④ 재학증명서 1부
 - ⑤ 성적증명서 1부
 - ⑥ 통장 사본(본인 명의)
 - ⑦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⑧ 글쓰기 작품 1점 : 수필, 자작시, 생활문(장학생에 선발된다면) 등 형식,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제출

※ 영광군청 추천 : 영광군 추천 양식에 의함(구비 서류는 공통)
※ 구비서류접수 :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카페 <http://cale.daum.net/mmygg> 참고

- 3 서류접수 및 선발예정**
 - ◆ 서류 접수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 및 문의처 : (우 69003) 광주광역시 서구 유림로 100 (둔촌동 해천빌딩 7층)
 - 전화 : (062) 522-8422(사무국장 김성수 010-4622-2337 / 이메일 kss2377@hotmail.net)
 - ◆ 선발 일정
 - 접수 기간 : 2019년 11월 1일(금)~11월20일(수) 17:00까지
 - 최종 선발 : 2019년 12월 초순 발표
 -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카페 및 개발 통보)
 - 장학금 지급 및 장학증서 수여식
 - 2019년 12월, 재광영광군향우회 송년의 날(12월말) 예정
- 4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됨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영광군민인 자녀는 영광군청으로 제출하고, 재광영광군향우의 자녀는 이형만영광군향우 장학회 사무국 사무실로 제출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주택·아파트

- 문흥동 동광주병원부근 2층 주택 리모델링 원로 땅 189㎡ 집 171㎡ 교환원함 2억8천
- 아파트 월산동 제일파크 12층 67㎡ 조용한 생활 적함 1억2백
- 광주대학 부근 금호아파트 12층 151㎡ 올리모델링 은행 1억6800 매도 2억5500

투자·매도·교환

- 무안 문탄면 연산강점 48900㎡ 펜션 14개동 요양병원 적합 교환가 32억
-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 복숭아밭 4026㎡ 투자 적함 1억1500
- 전원주택지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대지 235㎡ 2100만원
- 임대 계림동 이마트 부근 2층 88평 3층 86평 복층 사용 가능 2천에 230
-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 땅 4021㎡ 빌라·대형 중국집 적함 은행 2억 매도·교환 5억원
- 나주시 다시면 광목길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함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함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함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답) 8232㎡ 주위조경출음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간담터)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풍수상사찰 최고 적함 덕남동산 26951㎡ 건물 67㎡ 교환가능 가격 조정됨 8억
- 전원주택 적함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1130㎡ 조양 풀음 1억3천

상가건물

- 유동 NC백화점 부근상업지 306㎡ 신축 적함 건물에서 월 170수입 교환원 6억
- 유동 신축커뮤니티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4억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평 613㎡ 인접 30평(공실)과 16실 월 510 매도 14억
- 북구 임동 모빌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원
- 서구 치평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공실임 은행 8억 교환가능 19억

특급물건

- 동구 신수동5거리 대로점 준주거 1249㎡ 병원·주상복합 적함 법인이전 49억
- 곡성군 옥사동면 계화관리지역 234044㎡ 다용도·법인이전 10억6천
- 강진군 성전면 상업지 등 4240㎡ 강진산단에서 1km 소형 APT 등 적함 15억
- 요양시설 영광군향우 땅 5416㎡ 1층 477㎡ 중층 기능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
- 나주시 남대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적함 교환가능 11억6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부안곰소 토지매매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265-5외 14필

(계획관리지역)

- 졸포·IC·10분거리 해안탐방도로 (현 공사중)
- 곰소염전인접, 내소사 10분, 졸포생태공원 10분
- 조 망 : 앞 - 곰소만바다 뒤 - 내변산국립공원

매매가

평당 35만원

면적

약 2만평 분할 가능

리조트·숙박시설·근생

모든 업종 개발 가능

문의 010-5464-4448(주인)